

금주의 칼럼

효과적인 의사소통(8)

8. 온라인 시대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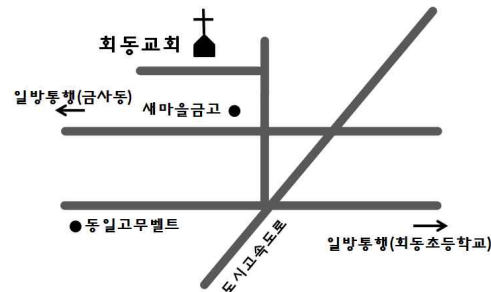
나는 온라인에서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가요?
채팅, 문자, 댓글에서도 정중함을 유지하고 있나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나요?
온라인 대화에서 감정이 왜곡되는 걸 경험한 적 있나요?
나는 상대방이 읽기 전에 내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나요?
SNS에서 과시나 비교가 아닌 소통을 이루고 있나요?
나의 온라인 언어는 진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대화보다 빠른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직접 만남보다 온라인 대화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가요?
나는 '말의 속도'보다 '말의 무게'를 더 중요시하고 있나요?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롬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삼 일 기 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삼 일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어린이주일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레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1장
교 독 문	96문 (어린이주일)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570장
기 도	강병욱 장로
성 경 교 독	잠언 1: 7-9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자녀에게 가르칠 것
찬송*봉헌	568장 / 봉헌
봉 헌 기 도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2026. 5 . 3 / 제 48-18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배영조목사

작은십자가 찬양

[1:45-2:05]

입 레: 인도자

찬 송: 249장 / 438장

기 도: 김삼예 권사 (다음: 박상태 집사)

성 경: 시편 65: 1-4

특 송: 김치현 집사 연주 (다음: 7구역)

말 씀: 찬송이 시온에서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누가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 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5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오정수(온천) 오세영(재송)
안 내 / 식 당	김삼례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3일) 2주(10일) 3주(17일) 4주(24일) 5주(31일)
기 도	1,2구역 3,4구역 5,6 구역 7,8구역 9,10구역
주 일예배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주 일오후	김삼예 박상태 현신 박영수 김장우
삼 일 밤	합심기도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522-3708(목사관)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1 5월안내: 5월 행사 봉사당번 나갑니다. 주보 참조바람.
- 2 어린이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 3 어버이주일: 다음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 4 피택자모임: 피택자 1차모임: 5월 10일주일 오후 1시 5분 3층 교육관
피택자들은 다 참석바랍니다.
- 5 구역모임: 5월 구역모임 구역별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 나갑니다.- 생명의 양식란 참조
- 6 총회세미나: 총회가 주관하는 목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11-14일. 경기도, 용인제일교회당 회집.
- 7 전도팀: 4월부터 전도팀 전도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셋째주. 1교구팀- 금요일 오후 2교구팀- 화요일 오후
- 8 행사안내: 1) 경배와찬양: 둘째주일
2) 어버이주일: 둘째주일
어버이선물준비(70세 이상분)
3) 월례회: 셋째주일
4) 선교헌신예배: 셋째주일

- # 야외행사: 6월 3일(수) 회동교회 전교인 대상 야외행사 있습니다.
전체 교우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5 월 행사 안내

* 어린이주일: 5월 3일	*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5월 셋째주일
* 어버이주일: 5월 10일	* 전도팀 전도: 첫째주, 셋째주 전도
* 어버이 선물: 70세 이상	1교구/ 2교구
* 선교헌신: 셋째주일	* 가정의달: 5월달
* 총회 목장세미나: 5월11-13 용인제일교회당	* 교사주일: 5월달
* 경배와 찬양: 5월 둘째주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모임: 5월 모임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공재영 김수안*허춘성 김중렬*박광자
이성희(여) 최진수*김미연 무명
- ◆**감 사:** 김수안*허춘성 김장우*전만주 김중렬*박광자
오세영 무명
- ◆**선 교:** 김경애 배영조*김옥단 김수안*허춘성
김장우*전만주 오세영 정대화
- ◆**건 축:** 김장우*전만주 김경애 김중렬*박광자 배영조*김옥단
오세영 김수안*허춘성 정대화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5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1452	
2	강형순				3810	
3	이은심				3400	
4	백운자				5635	
5	김경애				2725	
2교구						
6	이봉순				1186	
7	박광자				2170	
8	이현정				6044	
9	전만주				3419	
10	김종섭				760	

생명의 양식

05-1 훈계의 원리 (6) 잠언 29장 17절 구역공과

다섯째, 자녀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훈계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특징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부가 자질이 아닌데, 공부를 가지고 훈계하면 안됩니다.
기도가 자질이 아닌데, 기도를 가지고 훈계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기준으로 훈계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훈계할 때 훈계의 기준을 침착하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훈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설정할 때는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훈계할 때 부모의 기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을 상대로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빠는 이렇게 하고, 엄마는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훈계의 규칙은 대개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훈계의 집행은 대개 어머니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훈계의 기준에 있어서만은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의 훈계가 마땅치 않아도 자녀 앞에서 그 표시를 해서 자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내가 신앙인이고,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롭게 남편의 의견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서는 철저히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머니 혼자서라도 권위를 세우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어도 영적 기틀만 든든히 세우면 자녀들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